

People & Life

폴포츠, 14일 전주소년원서 공연



현대전화 외관원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인생 역전한 폴 포츠(Paul Potts)가 전주소년원생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전주소년원은 14일 오후 2시 송전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원 학생을 위한 폴 포츠 희망나눔 공연'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와 ㈜유지 컴퍼스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폴 포츠 씨의 노래와 인생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봉준호감독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에



봉준호 감독이 오는 20~30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리는 선댄스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11일 봉 감독이 연출한 '마더'(2009)의 투자제작사 바른손에 따르면 봉 감독은 모두 5명으로 이뤄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단에 포함돼 경쟁 부문에 진출한 58편을 심사한다.

4개 부문의 경쟁 섹션과 6개 비경쟁 섹션으로 이뤄진 올해 선댄스영화제에는 모두 118편이 초청됐으며 이 가운데 92편이 전 세계 최초 상영인 월드프리미어다.

전기공사협 광주회장에 문유근씨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는 11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문유근 유명전력(주) 대표이사, 부회장에 안일남(주) 준마이앤지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추대된 문신임 회장은 "지난 6년간 광주시회를 이끌어온 윤보선 전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들의 자문과 회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신협 광주시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이현규 교수 한국특허학회 회장 취임



이현규 조선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최근 한국특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1999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는 전국 대학 교수 및 과학기술인을 주축으로 특허발명에 관한 이론 및 기술 발전을 위해 특허 표준화사업 및 산학협동을 통한 특허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내방

- ▲송영중(전라남도 투자정책국장) ▲김동현(경계산업국장) ▲이점관(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 운영본부장) ▲조경화(전라남도 감사관) ▲최영열(종합민원실장)씨

“의술 전파에 국경 따로 있나요”

10년째 해외의료봉사 전남대 오희균 단장

인술과 선진 의술 전파를 목적으로 10년 동안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펼쳐 온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또다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을 찾아가고 있다.

오희균 전남대 해외 치과의료봉사단장(전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고통과 병을 치료하는 의술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의료 기술을 전하는 것이 해외 봉사활동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환자를 다루는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다만 전남대 치전원은 의료 기법이 취약

한 국가의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교육해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대 치전원은 오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날 연휴를 이용해 방글라데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치전원장의 임기를 마친 오 단장은 이번 봉사기간 동안 언청이 수술과 함께 현지 대학 교수들과 임플란트 및 약안면기형에 대해 워크숍을 갖는다.

전남대 치전원은 매년 겨울에는 설날 연휴를 이용해 방글라데시에서, 여름에는 방학 중에 몽골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특히 오 단장은 치전원의 공식적인 해외 봉사활동 참여 외에도 1년에 한 두 차례 단신으로 몽골이나 방글라데시를 방문, 봉사활동과 아울러 무료 시술 등을 통해 민간외교 활동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몽골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해 여야 당사 등 정계계 주요 인사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아왔다. 이 때문에 몽골에서 전남대 치전원과 오 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적이다. 지난해에는 몽골 신문에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오 원장 관련 기사가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몽골 Health Science University 치과대학 내에 전남대치과클리닉(CNU)을 설치, 이곳 치대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임상실



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진 의술의 전파를 통해 향후 해외 의료 관광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 치전원에는 중국,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에서 온 23명의 외국 치과사들이 연수를 받고 귀국했거나 연수중에 있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

김영진 전남대병원장 장학금 1000만원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이 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김 원장은 최근 전남대학교 김운수 총장을 만나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남대에는 학부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베트남 학생 39명이 수학하고 있으며, 대학 측은 유학생 비중을 늘리기 위해 베트남에 우수학생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병혜 교수 합부르크대 초청 강연

공병혜 조선대 교수가 독일 합부르크대학 교육학과 초청으로 강연을 갖는다.



공 교수는 10~15일 독일을 방문해 '간트미학의 관점에서 본 의사소통 윤리에서의 미적 태도'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공 교수는 고려대를 거쳐 독일 만하임 대학에서 철학·독문학 석사,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조선대에 재직하고 있다.

“양성평등·여성복지 목소리 높일것”

전남여성플라자 최순애 원장 취임

“녹색의 땅 전남이 여성들의 기회의 땅 전남”으로 변화하는데 전남여성플라자가 그 변화의 주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일 전남여성플라자 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순애(61)씨는 “전남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높고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이 지역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됐지만 성폭력 등 새로운 여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여성교육 프로그램과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 원장은 30여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육구

증가, 양극화, 양성평등, 여성복지 등 현재 도내 산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전남형 여성성격기능 강화 ▲인적자원역량개발을 통한 여성 경쟁력 증진 ▲성숙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지역여성의 다양한 요구 부응 ▲전남 녹색산업의 견인차 역할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국사회 대안에 목말라 있다”

8주연속 베스트셀러 1위 ‘그들이’ 장하준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열풍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한국출판인회의가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장하준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 교수는 이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사회가 대안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복지 사회 논쟁에 대해서도 “복지 논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뻐한다”면서 “2004~2005년 정승일 박사와 대담집 ‘해도나만 한국경제’ 등에서 복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복지를 할 처지가 되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 흔들고 있는 ‘통큰 치킨 논란’도 “복지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냉전구도에 갇혀 사회 복지를 제대로 못 하고, 시장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소농을 보호해 사회 평등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구조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이원일 前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별세

독립큐레이터 이원일(2004년 광주비엔날레 아시아-태평양 담당 큐레이터)씨가 11일 오전 5시 건강보험원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50세.



고인은 중앙대와 뉴욕대 미술대학원 출신으로 토탈미술관, 갤러리 이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를 지냈다.

또 2004년 플라다 우치 비엔날레 초청 큐레이터,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전시회 초빙감독, 2006 상하이 비엔날레 전시감독 등을 역임했다.

독일 ZKM 아시아 현대미술전 전시감독, 세비야비엔날레 공동전시감독을 맡은 뒤 손봉체, 이이남씨 등을 이룰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역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BSI 재단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광주에서 열린 ‘디지털스타’의 주제전 감독을 맡기도 했다. 민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3일 오전. 문의 02-2030-7903.

오광목기자 krah@kwangju.co.kr

고구려대, 대만 대학생 초청 한국어 연수



고구려대학은 10일부터 9박 10일 동안 대만 명성고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연수 및 문화체험 단기연수’를 갖는다.

<고구려대 제공>

조선대 법대, 대만정치대와 교류 협정



조선대 법과대학(학장 최두진)은 최근 대만 최고의 명문대학인 국립대만정치대학 법과대학(학장 방기린)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조선대 제공>

대광여고,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성금 200만원



대광여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최근 광주 31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헌빛축제 사랑의 차 나눔행사’에서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대광여고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영숙씨 장남 서오현군 장경택·김명자씨 장녀 선희양=15일(토) 오후 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연호(하남철강(주) 대표)·민순자씨 장남 니민군 전정철(담양군 의회 의장)·박광순씨 장녀 철아양=15일(토) 낮 12시 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정영옥(신성건축사 사무소 대표)·김인숙씨 장남 원준군 이장가씨 사녀 조운선양=15일(토) 낮 12시 40분 상무리츠 컨벤션 웨딩홀 1층(아이비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2일(수) 오후 6시 30

분 덕담(봉선동 모아 아파트 1차 건너편) 062-673-5279. ▲북성중 32회 동창회(회장 이은석) 월례회=12일(수) 오후 7시 도화일식(상무지구) 062-383-0044.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모임=13일(목)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4. ▲칭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15일(토) 오전 11시 신정 연회장(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육교 건너편) 062-365-0900.

▲고씨 광주중흥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회=15일(토) 오전 11시 그린호텔10층연회실(현대극장 옆) 062-252-1000, 011-9610-3369(총무 고영창)

모집

▲제3기 청춘연극교실 회원=대학생,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 수업기간 18일~2월 24일 매주 화·목 저녁 7시~9시(총 6주, 주 2회, 2월 첫주 휴무, 2월 말 공연예정) 모집인원 10명, 회비 5만원. 010-7205-0500.

▲광주FC 축구회원은 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당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당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식음료,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부음

▲김금동씨 별세 김병일(광주시청 기업지원과장)·영순·정숙씨 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덕초씨 별세 강홍길·유길·영자·영희·명옥·명희·국희씨 모친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신동순씨 별세 우섭·용섭·숙자·혜경·우자·인자·윤경씨 부친상=발인 1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문순연씨 별세 김정환·금례·금인 1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중남 님(남/82세)
子: 김형태, 김소경
女: 김소영
故 김중남 님(여/81세)
子/子婦: 김성우/노은하, 성시/김용희
女/婿: 김현숙/정문태, 예숙/백정근
故 김철현 님(남/52세)
子: 김재일, 未亡人: 박명희
女: 김미진
故 박성은 님(남/89세)
子/子婦: 박영수/양희자, 민수/김경애
女/婿: 박영숙/강문수, 경숙/김동태
www.mykumho.com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박영구·재성 씨 부친상 김병환 씨 부부상 시00분 장지: 옥과 울사리 선영 연락처:250-발인:1월12일(수) 10시00분 장지: 영락관 4413
▲유영동 씨 부친상 김복만·선희주·이상영 씨 부부상 발인:1월13일(목)09시00분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연락처:250-4407
▲최연일·태중·태술 씨 모친상 김광훈·박영자·광주 장등동 선영 연락처:250-4409
▲김종영·종호·종구·진수 씨 부친상 나형 손 씨 빈모상 발인:1월13일(목) 09시30분 관:정진동 씨 부부상 발인:1월13일(목) 10 장지: 방월동 묘역 연락처: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